조사분석자료

제 4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009. 7.4.

한국경제신문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제4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6

3. 경제 현안 조사 결과 ····· 23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26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2007년 하반기 1차 조사 이후 2기 연속 하락하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 33.6에 비해 상승세로 전환하여 38.6을 기록하여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경제적 행복감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미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2008년 12월 125.6에서 2009년 6월 128.8로 2회 연속 상승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2009년 6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 20대 독신 전문직 여성인 것으로 추정됨

○ 부문별 경제적 행복 지수

- **지역별 :**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월 현재 서울이 1위로 가장 높고 충북이 17위로 가장 낮았음
  - 지역별 경제적행복지수 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경기, 대전 등 대도시들은 각각 1 위, 2 위, 3위를 기록하였고 경제적 행복감이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도가 15위, 전남과 충북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그동안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던 울산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경기 약화로 행복지수가 크게 떨어짐

- **직업별 :** 직업별로 볼 때 경제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군은 전문직이며 가장 낮은 직군은 자영업자임
  - 직업별 추이를 보면, 자영업자의 경제 행복감은 최저 수준이나 기저 효과 등으로 전기대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반면 ,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소폭 하락

- **연령별 :** 가장 행복한 세대는 20대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노년층의 행복감이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이 전기대비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였으며 40대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미래에 대한 경제 행복 예측도 상당히 비관적임

- **소득 및 자산별 :**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일수록 경제 행복감이 가장 높고, 저소득자와 저액 자산가일수록 경제 행복감은 낮게 나타남
  · 특히, 전기대비로 소득 8천만 원 이상, 자산 20억 이상의 부유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주가 상승이나 부동산 시장 호전 등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 **학력별 :**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제 행복감이 가장 낮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
  ·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세 등으로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음

- **혼인상태별 :**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제 행복감이 높고, 이혼자와 사별자의 행복감은 낮은 수준임
  · 그러나, 경제위기 영향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낮은 이혼자나 사별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상승폭이 두드러짐

○ 경제 현안 조사 결과

- (경제 위기 정도) 과거 외환위기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음
- (경제적 행복 상실 원인) 내수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일자리 상실과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가장 큰 경제적 공포로 인식됨
- (경제 회복 시기) 2011년 이후에나 본격적 경기 회복이 가능하며 가계 경제 사정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정책 과제 조사 결과

- (정책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한 것은 물가 안정으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4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조사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① + ② + ③ + ④ + ⑤}{5} + ⑥}{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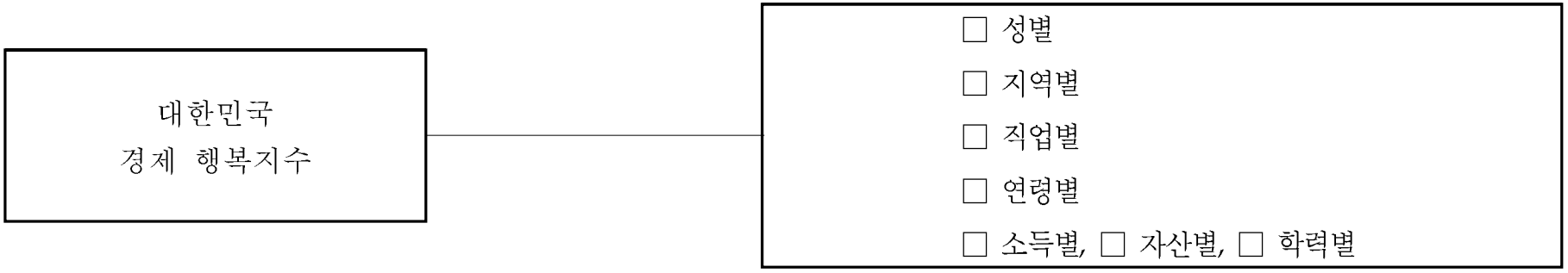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9년 6월 3일 ~ 6월 12일(9일간),
- 조사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13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분당/고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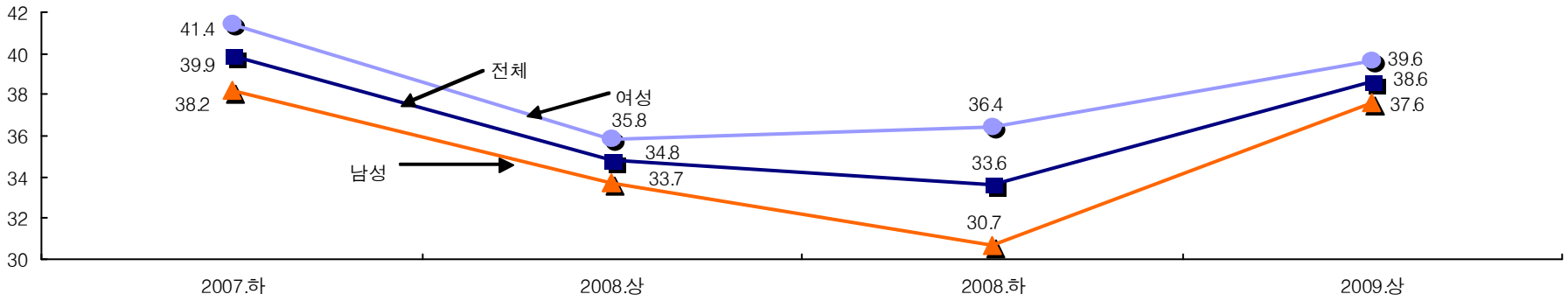


2.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2007년 하반기 1회 조사 이후, 2기 연속 하락하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경제적 행복 예측도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경제적 행복 지수는 2007년 하반기 39.9에서 2008년 상·하반기 각각 34.8과 33.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38.6으로 5.0p 상승세로 전환
- 한편, 남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지수가 개선되었는데, 특히 남성들은 전기대비 6.9p 상승하며 5.0p 상승한 여성들보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8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각각 2.5p와 3.2p 지속 상승하며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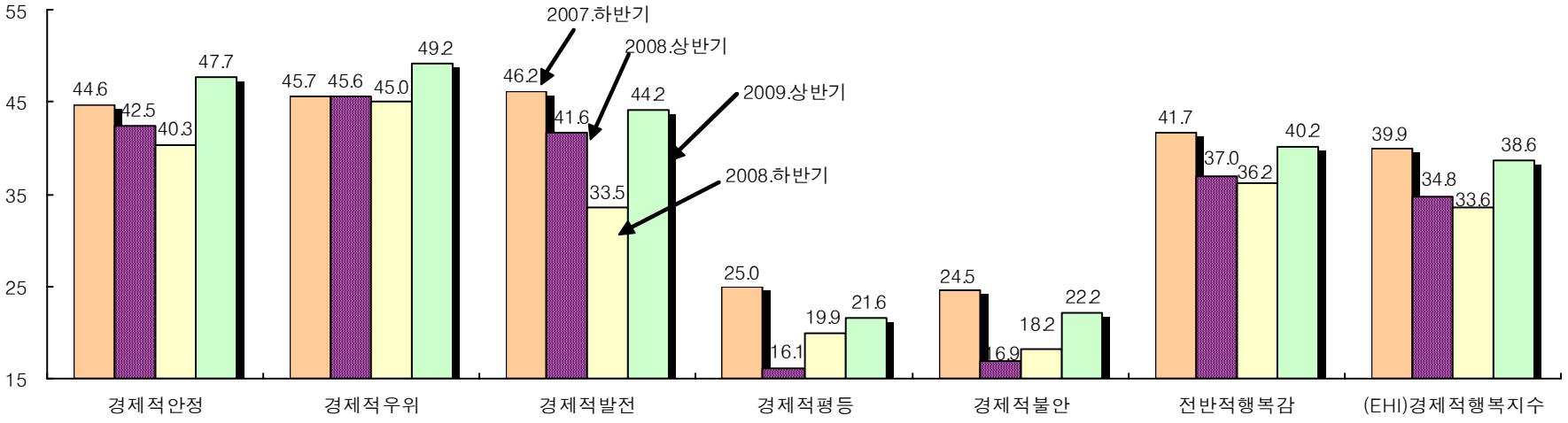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7년 하반기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고, 특히 경제적 안정이나 우위면에서는 4회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표명

- 특히, 경제적 발전 지수는 2008년 하반기 33.5에서 44.2로 10.7p 상승하며 크게 개선되었고, 전반적 행복감도 40.2로 전기대비 4.0p 상승하며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항목별 경제적 행복 지수 비교 >



○ **(경제적 행복 예측) 2008년 상반기 크게 하락했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8년 하반기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도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3.2p 상승한 128.8로 미래에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 낙관적인 기대를 보임[1)]**
  - 2008년 하반기 조사(제3회 조사)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행복 수준은 33.6으로 ▽1.2p 하락하였으나,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은 오히려 2.5p 상승한 125.6을 기록하여 장래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
  - 2009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행복 지수는 38.6으로 전기대비 5.0p 상승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역시 3.2p 동반 상승한 128.8을 기록하여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로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하였으나, 최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실물 경기 부진으로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희망적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행복 예측 추이 >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여 성	137.0	131.1	129.2	129.6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국 17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위(45.7)로 가장 높고, 충북이 17위(31.3)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남

- 서울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 38.6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이 반영되고 있는 결과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지역별 순위에 있어서 서울, 경기, 대전이 각각 1,2,3위를 기록하였고, 부산, 광주, 인천 등도 12, 10, 14위(2008년 하반기 순위)에서 6, 7, 8위로 높게 상승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대구, 인천 등 대도시들은 높았으나, 반면 경제적 행복지수가 낮았던 제주도는 105.0으로 최저치를 기록

- 충북은 2008년 상반기 조사의 1위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17위로 최하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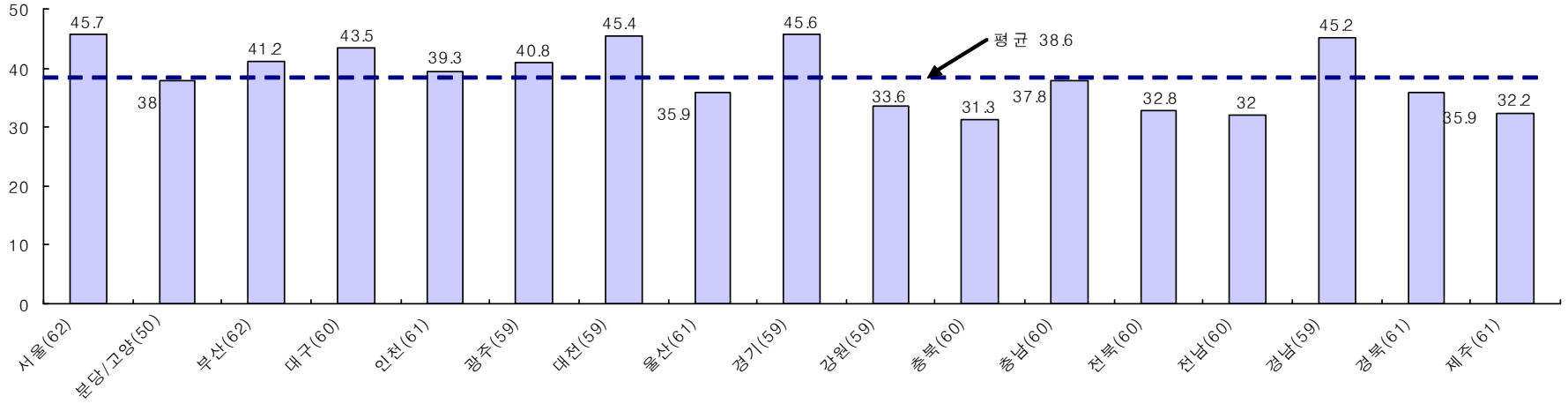
· 이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됨

· 아울러, 경북과 울산이 2008년 하반기 각각 2위와 3위에서 공동 11위(35.9)로 하락하였고, 제주도는 4위에서 15위(32.3)로 순위가 급락하였고 행복지수도 지역 평균치인 38.6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 반면, 경남은 16위에서 4위(45.2)로 상승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	분당/고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49.6	50.0	46.0	53.8	45.9	45.3	51.3	52.0	48.7	50.4	40.8	49.2	40.4	47.1	50.0	47.5	43.4
경제적 우위	52.8	48.0	42.7	60.0	50.4	52.1	55.9	50.0	52.5	45.3	42.9	50.8	52.5	45.4	50.0	43.9	41.4
경제적 발전	46.0	45.0	45.2	46.7	43.9	43.6	40.7	41.8	43.6	44.1	42.9	45.0	43.8	46.3	47.5	41.4	43.4
경제적 평등	31.7	24.5	28.7	12.1	18.4	20.8	21.6	20.1	23.3	17.4	22.9	19.1	20.0	12.5	28.0	26.2	20.5
경제적 불안	26.6	22.5	29.4	20.4	20.9	26.3	25.8	23.0	25.4	14.0	17.1	17.5	25.4	18.8	22.5	23.8	17.2
전반적 행복감	50.8	38.0	43.5	48.3	42.6	44.1	51.7	34.4	52.5	33.1	29.2	38.3	29.2	30.0	50.8	35.2	31.1
경제적 행복지수	**45.7**	**38.0**	**41.2**	**43.5**	**39.3**	**40.8**	**45.4**	**35.9**	**45.6**	**33.6**	**31.3**	**37.8**	**32.8**	**32.0**	**45.2**	**35.9**	**32.2**
지역별 순위	1	9	6	5	8	7	3	11	2	13	17	10	14	16	4	11	15
경제적 행복 예측	142	132	129	140	141	111.8	125.4	127.8	152.6	125.4	136.6	123.4	126.6	126.6	122	121.4	105

주: 3회 조사 때는 서울(분당,고양 포함)은 5위를 기록.



자료 : 지역의 괄호내 숫자는 표본수를 나타냄.

○ (직업별) 경기 침체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경제 행복감은 최저 수준이나 상승폭은 가장 높은 반면,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전문직과 공무원은 소폭 하락

-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제적 만족도는 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이들을 제외한 타직군은 모두 상승

· 전문직과 공무원을 제외한 타 직군의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모두 상승했으나, 전문직과 공무원은 각각 3.1p, 공무원도 0.1p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전문직은 32.4p, 공무원도 8.6p 상승함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경기 침체로 가장 고통 받았던 자영업자와 기타/무직 군의 경제적 행복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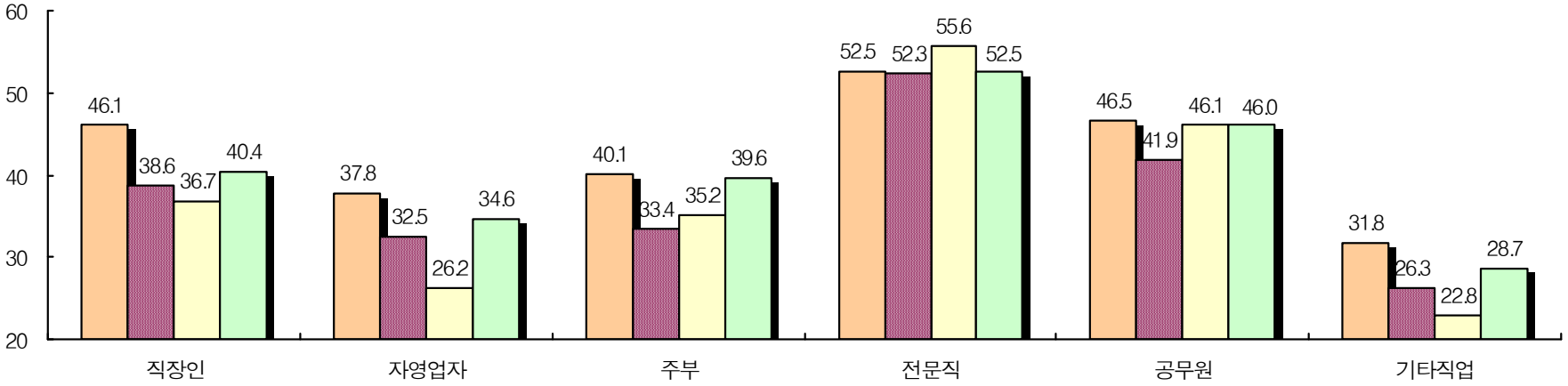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8.4p 상승한 34.6, 기타/무직 군도 5.9p 상승한 28.7을 기록하여 두 직군의 경제 행복감이 가장 높게 상승

· 자영업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1.2p 상승한 123.4를 나타내 비교적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기타무직군은 미래에 경제적 행복 예측은 100을 하회하는 87.2로 전기대비 2.2p 하락하여 매우 비관적인 자세가 유지

· 특히, 직장인들은 현재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0.4로 전기대비 3.7p 상승하였으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142.2로 3.2p 하락하면서 구조조정 및 실업 상태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

<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2]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1.9	6.7	35.0	5.3	50.5	7.2	66.7	16.7	70.6	10.5	26.1	1.3
경제적 우위	51.7	3.5	43.6	8.7	50.4	0.9	60.0	▽9.0	60.0	4.3	37.0	4.6
경제적 발전	54.5	11.0	36.9	11.5	37.1	6.4	51.7	11.2	65.4	13.0	22.6	6.9
경제적 평등	21.4	▽0.4	16.3	0.1	23.3	1.8	23.2	12.5	20.6	0.1	27.4	9.0
경제적 불안	22.0	2.8	18.8	1.6	22.7	6.1	28.3	▽0.3	28.0	▽1.5	20.5	7.9
전반적 행복감	40.5	2.7	39.2	11.6	42.6	3.8	56.7	▽14.7	43.0	▽5.8	30.3	3.9
경제적 행복지수	40.4	3.7	34.6	8.4	39.6	4.4	52.5	▽3.1	46.0	▽0.1	28.7	5.9
경제적 행복 예측	142.2	▽3.2	123.4	1.2	124.2	6.4	146.6	32.4	151.4	8.6	87.2	▽2.2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7년 하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노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고령일수록 더욱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0대의 회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37.4 → 40.5)

· 경제적 행복에 대해 20대가 45.6으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는 전기대비 8.7p 상승한 39.9를 기록하여 가장 상승폭이 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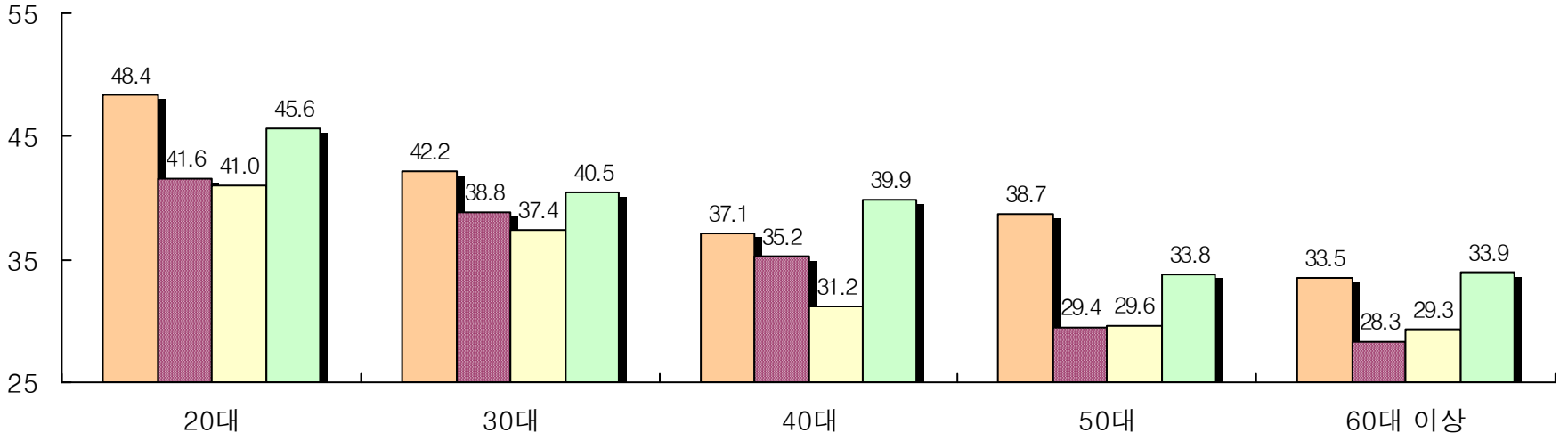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경제적 고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대의 경우 150.0로 가장 높았지만, 전기대비 ▽3.8p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0이하인 87.5를 기록하고 전기대비로도 7.9p 하락하여 미래에도 경제 만족도가 상당히 암울할 것으로 예측

· 특히 20, 30대의 경우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비하여, 각각 3.8p와 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경제 행복에 대한 낮은 기대를 반영하였고 40대와 50대의 중간 세대는 18.8p와 9.2p 상승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2.2	3.5	52.5	9.0	53.2	12.5	39.2	1.6	39.4	10.8
경제적 우위	58.5	5.7	50.0	4.7	52.1	6.6	41.9	0.3	46.0	5.2
경제적 발전	64.2	9.0	56.5	12.1	46.4	16.5	28.7	7.3	25.2	10.0
경제적 평등	19.3	▽4.2	18.7	0.3	19.9	0.7	24.8	7.3	26.8	1.8
경제적 불안	26.8	0.7	21.0	0.9	23.9	6.6	18.5	5.2	22.6	6.6
전반적 행복감	47.1	6.4	41.3	0.5	40.7	8.4	37.0	4.2	36.1	0.8
경제적 행복지수	**45.6**	**4.6**	**40.5**	**3.1**	**39.9**	**8.7**	**33.8**	**4.2**	**33.9**	**4.6**
경제적 행복 예측	**150.0**	**▽3.8**	**147.2**	**▽2.4**	**136.0**	**18.8**	**114.6**	**9.2**	**87.5**	**▽7.9**



○ (소득 및 자산별) 소득 8천만 원 이상, 자산 2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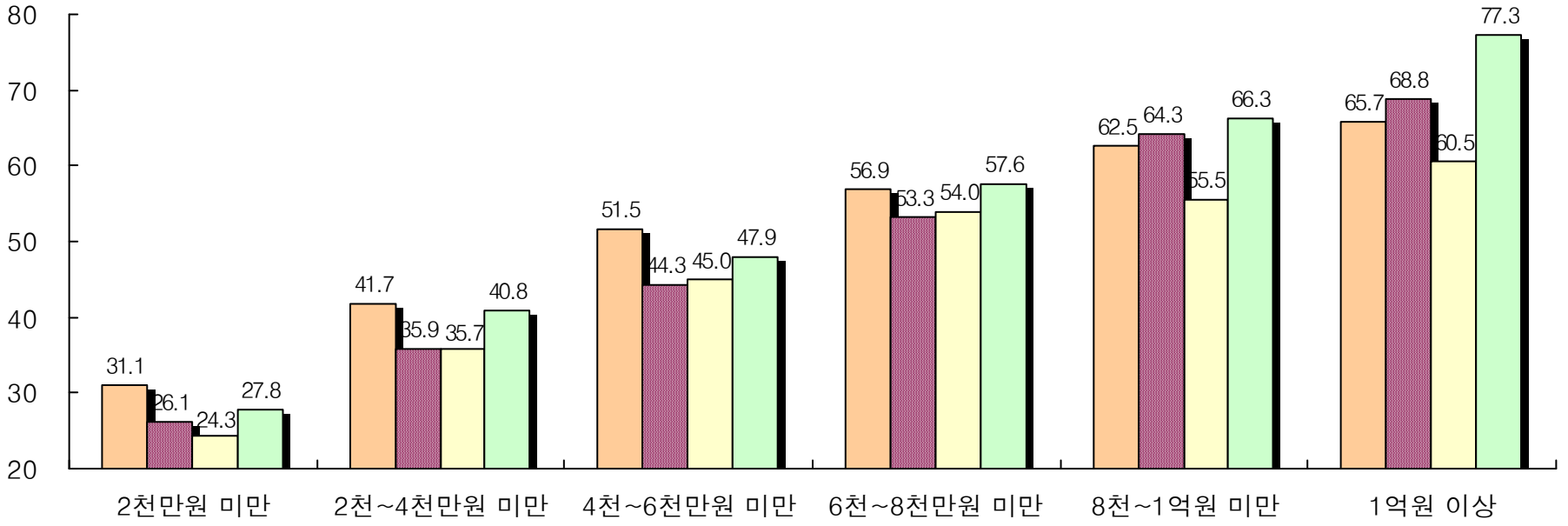
- 소득별로는 8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행복 지수의 상승폭이 제일 큼

· 각 소득 구간 모두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였으나, 특히 8천만 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주식시장 상승, 부동산 시장 호전 등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행복감이 더욱 높아졌음

· 그러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에 4천~6천만원 소득자들은 전기대비 22.4p, 21.0p 상승하여 더욱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2천만원 미만의 하위소득자들은 ▽3.8p, ▽2.4p 하락하여 미래 경제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29.8	5.5	50.9	5.3	67.9	7.9	79.3	11.3	90.0	25.7	94.6	24.6
경제적 우위	35.8	4.0	50.9	4.1	62.7	▽0.8	73.9	▽1.1	77.5	6.1	94.6	19.6
경제적 발전	29.9	7.3	50.1	12.9	54.1	7.4	67.9	14.4	77.5	15.0	69.6	14.6
경제적 평등	22.1	3.4	20.1	▽1.1	22.2	2.1	22.3	1.4	32.5	12.9	26.8	▽3.2
경제적 불안	17.3	4.6	22.1	2.2	26.5	▽0.3	33.2	13.4	35.0	1.1	58.9	33.9
전반적 행복감	28.8	1.7	42.8	5.4	49.0	1.7	59.8	▽0.7	70.0	9.3	85.7	15.7
경제적 행복지수	**27.8**	**3.5**	**40.8**	**5.1**	**47.9**	**2.9**	**57.6**	**3.6**	**66.3**	**10.8**	**77.3**	**16.8**
경제적 행복 예측	**103.8**	**▽3.8**	**135.4**	**▽2.4**	**155.8**	**22.4**	**165.2**	**21.0**	**160.0**	**2.8**	**171.4**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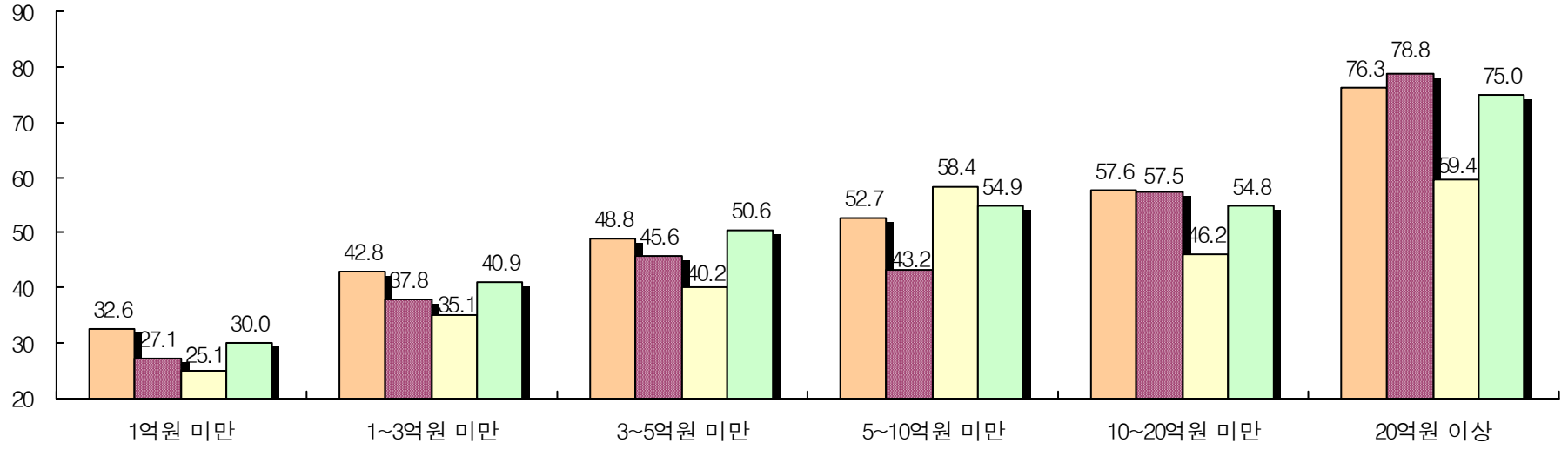
- 자산별로는 20억원 이상 부유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15.6p 상승한 75.0을 기록하여 가장 높게 상승함

· 특히,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20억원 이상의 부유층에서는 100.0p 상승한 200.0을 보여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 그러나, 1억원 미만을 소유한 저액 자산가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4.4p 하락하여 미래에도 경제 행복감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7.3	7.8	49.8	6.5	65.0	17.4	71.3	▽1.6	66.7	3.5	85.4	47.9
경제적 우위	38.1	5.9	52.1	3.0	64.8	9.1	72.2	▽2.4	70.8	4.6	85.4	10.4
경제적 발전	37.8	8.9	45.5	10.0	54.6	20.0	56.5	6.9	60.4	33.9	62.5	31.2
경제적 평등	21.0	2.3	23.1	4.5	17.1	▽2.4	32.1	5.3	13.5	▽27.7	25.0	▽12.5
경제적 불안	18.0	4.1	21.7	3.5	27.1	6.7	34.7	▽4.7	34.4	5.0	54.2	16.7
전반적 행복감	29.5	3.7	43.3	5.4	55.6	10.7	57.4	▽7.4	60.4	13.3	87.5	12.5
경제적 행복지수	**30.0**	**4.9**	**40.9**	**5.8**	**50.6**	**10.4**	**54.9**	**▽3.5**	**54.8**	**8.6**	**75.0**	**15.6**
경제적 행복 예측	**113.4**	**▽4.4**	**133.2**	**10.4**	**144.4**	**10.0**	**163.0**	**5.2**	**166.6**	**25.4**	**200.0**	**100.0**



○ (학력별) 취약계층인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 행복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가장 낮지만, 이번 조사에서 여타 학력 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임

· 이는 전기에 중졸이하 학력의 행복지수가 14.3p 대폭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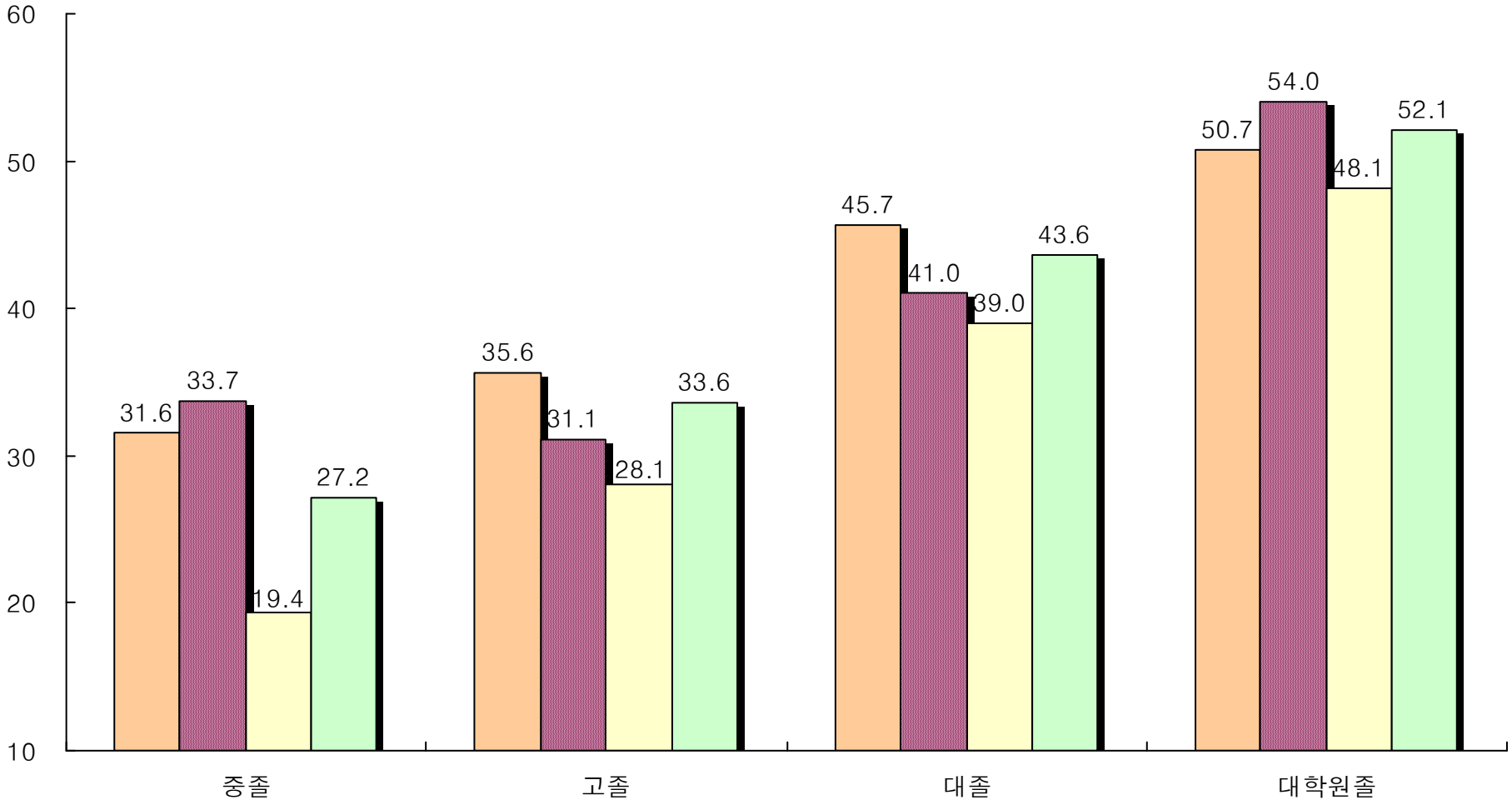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9.4p 하락한 84.8을 보여 현재의 경제적 불행이 미래에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음

-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도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4.0p 상승하였으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12.0p 하락한 138.0을 기록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

· 이는 저학력자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의 취업난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30.6	13.2	40.5	5.8	55.2	7.1	69.6	12.8
경제적 우위	35.8	7.1	42.7	2.1	55.2	5.1	69.6	7.7
경제적 발전	21.0	7.5	37.5	12.1	53.9	11.5	56.0	12.2
경제적 평등	29.0	9.4	23.3	2.8	17.7	▽2.1	25.6	7.4
경제적 불안	17.1	7.0	20.1	3.3	24.4	3.8	26.2	2.4
전반적 행복감	28.1	4.1	34.3	5.5	45.7	3.8	54.8	▽0.9
경제적 행복지수	**27.2**	**7.8**	**33.6**	**5.5**	**43.6**	**4.6**	**52.1**	**4.0**
경제적 행복 예측	**84.8**	**▽9.4**	**126.2**	**13.4**	**142.6**	**3.0**	**138.0**	**▽12.0**


60
50
40
30
20
10
31.6
33.7
19.4
27.2
35.6
31.1
28.1
33.6
45.7
41.0
39.0
43.6
50.7
54.0
48.1
52.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 (혼인 상태별) 여전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족 부양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낮은 이혼자나 사별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상승폭이 두드러짐

- 경제적 행복 지수의 상승폭이 기혼자보다 이혼자나 사별자에서 높게 나타남

· 미혼자나 사별자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나 미혼자가 이혼자나 사별자보다 월등히 높음

·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정신적 위로와 힘이 되어 미래에 대한 행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혼자와 사별자의 경제적 행복 지수가 각각 전기대비 11.6p와 8.4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혼자나 미혼자들에 비해 만족감이 낮아 재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계몽과 재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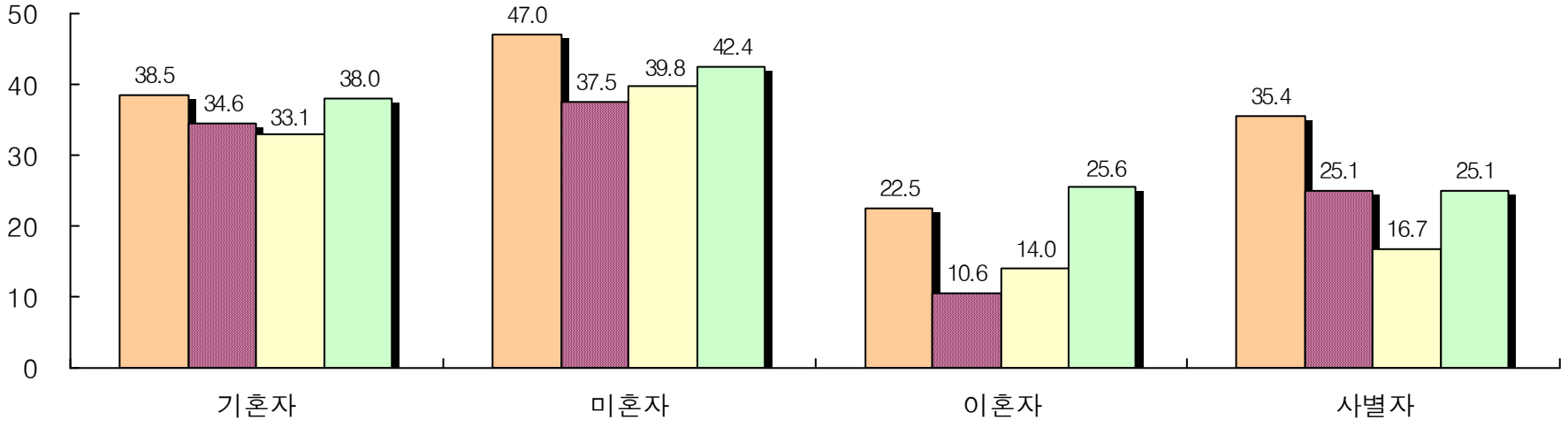
· 이혼자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전기대비 11.6p 상승한 25.6를 보였고, 사별자도 8.4p 상승한 25.1을 기록

· 특히, 이들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44.4 및 60.0으로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혼율을 높여 출산율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이 필요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47.9	7.4	49.8	5.3	25.0	7.5	30.0	10.2
경제적 우위	48.6	4.1	53.1	3.0	38.9	6.4	37.5	8.3
경제적 발전	39.5	8.6	63.5	12.8	27.8	15.3	25.0	16.7
경제적 평등	22.0	2.2	19.6	▽1.7	5.6	▽9.4	32.5	14.0
경제적 불안	21.4	4.5	24.6	▽0.8	19.4	6.9	26.3	15.9
전반적 행복감	40.2	4.2	42.6	1.4	27.8	17.8	20.0	1.2
경제적 행복지수	38.0	4.9	42.4	2.6	25.6	11.6	25.1	8.4
경제적 행복 예측	126.2	4.0	150.2	▽2.8	44.4	4.4	60.0	▽9.6



3. 경제 현안 조사 결과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1997년 외환 위기보다 힘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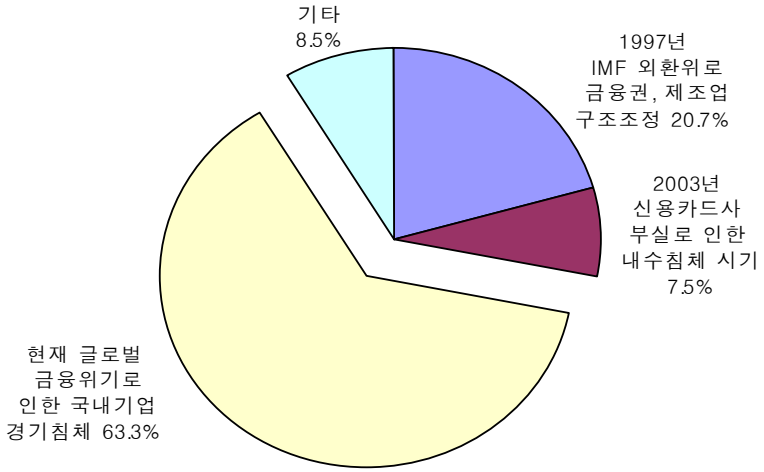
- 귀하는 경제적 행복 관점에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72명의 응답자 중에서 615명 (63.3%)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 내 경기 침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 것으로 응답함

· 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금융권 및 제조업 구조조정은 201명(20.7%)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함

· 2003년 신용카드 부실로 인한 내수침체시기에 대해서는73명(7.5%)만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도 83명(8.5%)임

· 내수 경기 침체와 신규 일자리 창출력 저하에 따른 실업 증가로 인해 현재 저소득 및 저학력층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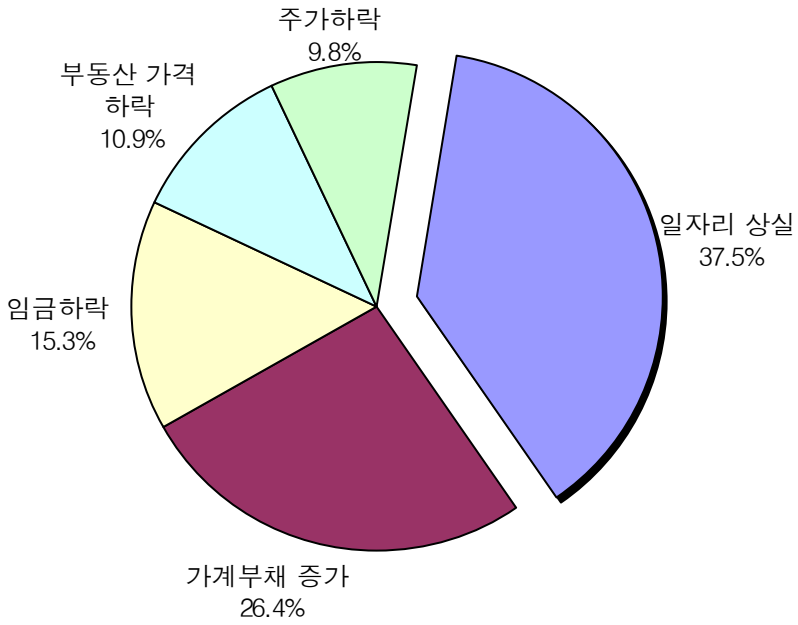
○ 내수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일자리 상실이 가장 큰 경제적 공포

-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행복감 상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이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874명의 응답자 중에서 328명 (37.5%)이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상실이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응답함

- 특히, 전체 응답자 중 231명 (26.4%)이 가계부채 증가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실업 증가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된 결과로 판단됨

- 전체 응답자 중 '임금하락', '부동산가격 하락' 및 '주가하락'은 각각 15.3%, 10.9% 및 9.8%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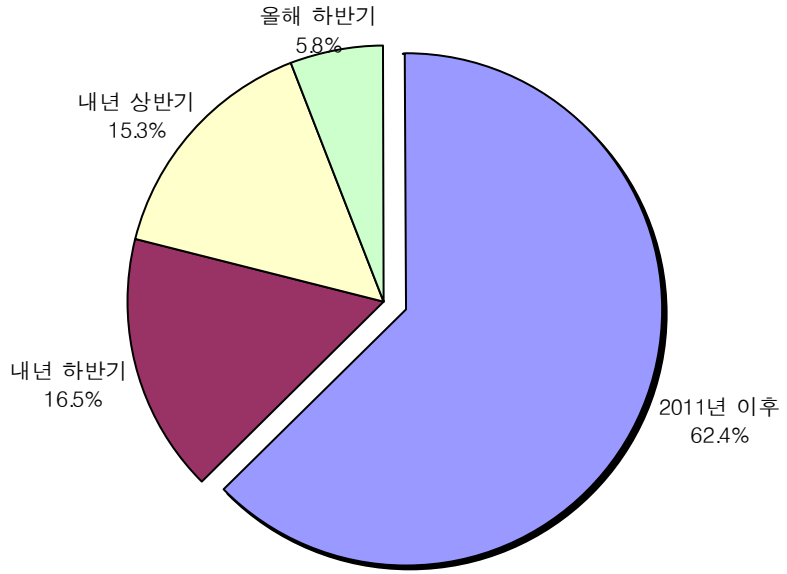
○ 2011년 이후에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

- 우리 경제 상황이 언제쯤 가계 경제 사정을 호전시킬 정도로 회복될 것인가?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05명의 응답자 중에서 627명 (62.4%)이 2011년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및 '올해 상반기'는 각각 16.5%, 15.3% 및 5.8%로 이들은 늦어도 2010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수출국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회복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이 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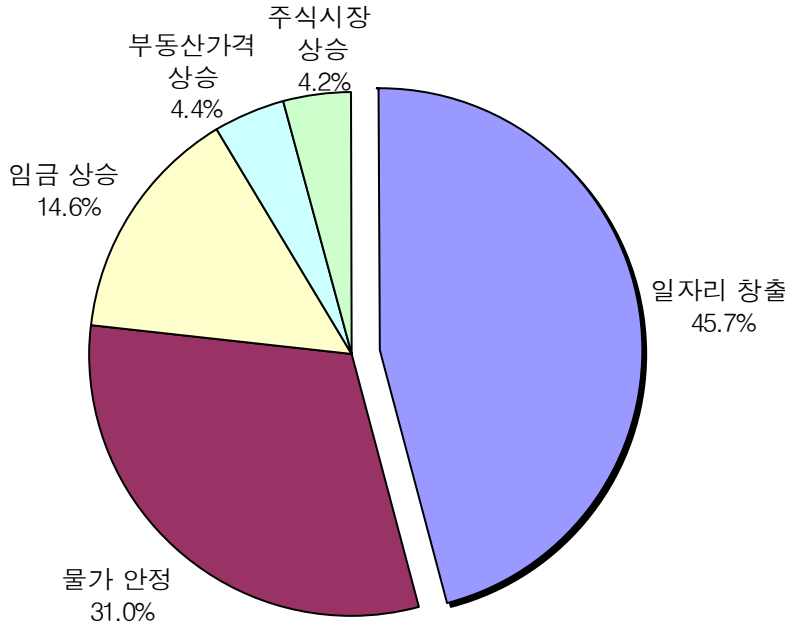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임

-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경제정책은? 이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90명의 응답자 중에서 452명 (45.7%)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하고 307명(14.3%)이 물가안정 이라고 응답함

- 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식시장 상승은 각각145명(14.6%), 44명(4.4%) 및 42명(4.2%)이 응답함

- 이는 국민들이 임금이나 자산가격 상승 등과 같은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09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독신 여성이면서 전문직으로 추정

· 이들의 현재 경제적인 행복과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모두 6개월 전에 비해 상승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

○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8년 하반기 조사부터 2회 연속 상승

- 미래 경기 회복에 따르는 경제적 행복 예측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경제 행복 지수와 함께 모두 상승

· 이는 한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은 이와 같은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

○ 일자리 상실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장 큰 경제적 행복 상실의 원인

- (경제 위기 정도) 과거 외환위기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음

- (경제적 행복 상실 원인) 내수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일자리 상실과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가장 큰 경제적 공포로 인식됨

- (경제 회복 시기) 2011년 이후에나 본격적 경기 회복이 가능하며 가계 경제 사정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

- (정책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한 것은 물가 안정으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연 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홍 유 림 전 문 연 구 원 (3669-4018, ylhong@hri.co.kr)